



타이완관광청, 2015 트래블마트 및 관광설명회 개최

주말에는 로드쇼로 시민들과 소통
(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뉴스일자: 2015년08월26일 09시10분

Taiwan

THE HEART OF ASIA

타이완관광청 로고.(사진제공=타이완관광청)

타이완관광청은 27일(부산 롯데호텔)과 28일(서울 플라자호텔) 양일간 여행사 및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트래블마트 및 관광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타이완 현지 여행사, 호텔, 테마파크, 기념품업체 등 28개 업체 50여 명의 대표단이 직접 한국을 찾아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일대일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서 마련되는 관광설명회에서는 타이완 각지의 여행정보를 담은 11인의 아주 특별한 여행기 "Story of Taiwan" 및 미식, 문화, 로하스 등 테마별 여행정보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9일 토요일에는 강변역 테크노마트 광장에서 로드쇼를 개최해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 다양한 문화체험과 경품, 타이완 대표단 뿐만 아니라 한국 주요 여행사들도 함께하는 여행상담존 운영을 통해 타이완을 한층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

특히 이번 방문일정에는 세웨이쥘(謝謂君) 교통부관광국 국장이 직접 타이완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그 어느 해보다 적극적이고 다채로운 홍보의 장이 펼쳐질 예정이다.

세웨이쥘 국장은 "타이완은 가깝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국가"라며 "양국의 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양국 상호교류 100만 명 달성과 더불어 지난달까지 한국인 여행객수가 36만9080명으로 지난해 대비 23.15% 성장하는 등 대만은 명실공히 인기 해외여행지로 자리매김 했다.



pressmedia@korea.com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a.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09 (주)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참달기

노컷뉴스

타이완관광청 "한국·타이완 관광활성화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

2015-08-28 16:47 / CBS노컷뉴스 특례블룸 윤슬빈 기자

타이완 트래블마트 및 관광설명회 개최



▶ (사진=윤슬빈 기자)

타이완관광청이 28일 서울 중구 무교동 더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과 타이완 양국의 관광교류 활성화를 위해 '트래블마트 및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작년 양국 상호교류 100만 명 달성과 더불어 올해 7월까지 한국인 여행객수가 36만9,080명으로 2년 대비 23.15% 성장하는 등 타이완은 우리나라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트래블마트에는 타이완 현지 여행사, 호텔, 테마파크, 기념품업체 등 28개 업체 50여 명의 대표단이 직접 한국을 찾아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일대일 상담 등을 통해 타이완의 다양한 여행정보를 제공했다.

이어 마련된 관광설명회에선 타이완 각지의 여행정보를 담은 11인의 아주 특별한 여행기 '스토리

오브 타이완(Story of Taiwan)' 및 미식, 문화, 로하스 등 테마별 여행정보를 소개했다.



= (사진=윤슬빈 기자)

이번 관광설명회는 스딩(石定) 주한타이베이대표부 대사, 세웨이쥘(謝謂君) 타이완 교통부 관광국장, 황이핑(黃怡平) 타이완관광청 서울사무소장, 이재석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등을 비롯해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세웨이쥘(謝謂君)국장은 "타이완은 가깝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국가"라며 "양국의 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9일 강변역 테크노마트 광장에서 로드쇼를 개최해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다양한 문화체험과 경품, 타이완 대표단뿐만 아니라 한국 주요 여행사들도 함께하는 여행 상담 존을 운영하게 된다.

이 기사 주소: <http://www.nocutnews.co.kr/4465093>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5 타이완 트래블마트' 서울서 열려

(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뉴스일자: 2015년08월30일 20시04분



지난 28일 오전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2015 타이완 트래블마트'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대만 현지의 여행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방한해 한국 여행업계와 B2B 상담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pressmedia@korea.com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09 (주)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창닫기

한국-대만 여행업 B2B 상담의 장 '2015 타이완 트래블마트'

(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뉴스일자: 2015년08월30일 20시05분



지난 28일 오전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2015 타이완 트래블마트'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대만 현지의 여행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방한해 한국 여행업계와 B2B 상담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pressmedia@korea.com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a.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09 (주)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첨달기



타이완관광청, '2015 타이완 트래블마트' 성황리 개최

(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뉴스일자: 2015년08월30일 20시07분



지난 28일 오전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2015 타이완 트래블마트'가 열리고 있다. 이 행사는 대만 현지의 여행관련 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방한해 한국 여행업계와 B2B 상담과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pressmedia@korea.com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a.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09 (주)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참달기



"가깝고 안전한 타이완으로 여행 오세요"

(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뉴스일자: 2015년08월30일 20시22분



지난 28일 오후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2015 타이완 관광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세웨이진(謝謂君) 타이완 교통부관광국 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만 현지에서 정부 및 여행관련 업체 관계자들 50여명이 직접 방한해 한국 여행업계와의 B2B 상담과 교류를 진행하며 타이완의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pressmedia@korea.com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a.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09 (주)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첨달기



"한국-타이완 간 지방 직항 항공노선 확대할 것"

(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뉴스일자: 2015년08월30일 20시21분



지난 28일 오후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2015 타이완 관광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스딩(石定) 주한대만대표부 대표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만 현지에서 정부 및 여행관련 업체 관계자를 50여 명이 직접 방한해 한국 여행업계와의 B2B 상담과 교류를 진행하며 타이완의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pressmedia@korea.com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swa.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09 (주)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참담기



"한국-타이완 관광객 성장세 여전"

(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뉴스일자: 2015년08월30일 20시22분



지난 28일 오후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2015 타이완 관광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셰웨이진(謝謂君) 타이완 교통부관광국 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만 현지에서 정부 및 여행관련 업체 관계자들 50여명이 직접 방한해 한국 여행업계와의 B2B 상담과 교류를 진행하며 타이완의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pressmedia@korea.com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a.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09 (주)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첨달기



타이완 관광설명회 축하하는 이재성 관광공사 본부장

(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뉴스일자: 2015년08월30일 20시23분



지난 28일 오후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2015 타이완 관광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이재성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만 현지에서 정부 및 여행관련 업체 관계자들 50여명이 직접 방한해 한국 여행업계와의 B2B 상담과 교류를 진행하며 타이완의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pressmedia@korea.com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09 (주)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참달기



아시아뉴스통신
Asia news agency

인쇄하기

다운로드

타이완 관광설명회 축하하는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뉴스일자: 2015년08월30일 20시24분



지난 28일 오후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2015 타이완 관광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KATA) 회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만 현지에서 정부 및 여행관련 업체 관계자들 50여명이 직접 방한해 한국 여행업계와의 B2B 상담과 교류를 진행하며 타이완의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pressmedia@korea.com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09 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첨담기

타이완관광청, '2015 타이완 관광설명회' 서울서 성료

(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뉴스일자: 2015년08월30일 20시25분



지난 28일 오후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2015 타이완 관광설명회'가 열린 가운데 왕첸위(王鈞玉) 타이완 방한 대표단 부단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만 현지에서 정부 및 여행관련 업체 관계자들 50여명이 직접 방한해 한국 여행업계와의 B2B 상담과 교류를 진행하며 타이완의 최신 정보를 제공했다./아시아뉴스통신=유지현 기자



pressmedia@korea.com
 제보전화 : 1644-3331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anewsa.com>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Copyright © 2009 ㈜아시아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TravelDAILY

HOMI > 뉴스

한국-타이완 관광교류 100만 시대 열려

7월까지 37만 여명 한국인 타이완 방문...전년 比 23.15% ↑

이대석 기자 | 승인 2015.08.30 22:50

김포~카오슝 직항노선 개설 추진
모두, 하나투어 등과 긴밀한 협의 중

지난해 양국 상호교류 118만 명 달성과 더불어 타이완 방문 한국인 52만 명 돌파 기록을 세우며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타이완 관광청이 올해는 61만 명 돌파를 목표로 내걸었다.



이번 행사에는 타이완 현지 여행사, 호텔, 테마파크, 기념품업체 등 26개 업체 50여 명의 대표단이 직접 한국을 찾았다.

타이완 관광청은 지난 8월 27일 부산 롯데호텔에 이어 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여행사 및 업계 관계자를 초청, 트래블마트 및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타이완이 아시아의 여행 및 레저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한국 관광객 61만 명 유치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 것에만 치중하지 않고 새로운 여행코스 개발과 다양한 채널 확보 등을 활용해 타이완 여행의 '만족도'를 높여 타이완을 다시 찾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1:1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각각 성격에 맞는 피드백외 심층적인 의견은 나눴다.





세웨이쥬(謝謂君) 타이완 교통부관광국 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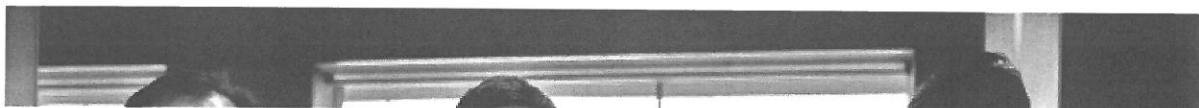
이번 행사에는 타이완 현지 여행사, 호텔, 테마파크, 기념품업체 등 26개 업체 50여 명의 대표단이 직접 한국을 찾아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1:1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각각 성격에 맞는 파트너와 심층적인 의견을 나눴다.



한옥민 모두투어 사장, 모두투어는 국내 여행사중 타이완에 기성 많은 송출객 실적을 보이는 곳 중 하나다.

이어진 관광설명회에 참석한 스딩 타이페이대표부 대사는 "이번 관광설명회는 한국시장에 보다 능동적으로 타이완을 홍보하려는 의도로 기획됐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은 타이완 관광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또 스딩 대사는 "새로운 관광코스과 항공노선확대, 이에 걸맞는 호텔객실 확충 및 가이드 양성 등을 통해 타이페이에 집중됐던 여행객을 분산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에 일환으로 빠른 시일내에 김포~까오슝 직항노선 개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타이완 산투투어 임직원(좌측끝 조정호 산투투어 대표)



스닝 타이페이대표부 내서

특히 이번 방문일정에는 셰웨이진(謝謂君) 교통부관광국 국장이 직접 타이완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그 어느 해보다 적극적이고 다채로운 홍보의 장을 마련했다.

세웨이진 국장은 “예기치 못한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까지 한국인 여행객 수가 36만 9080명으로 지난해 대비 23.15% 성장하는 등 대만은 명실공히 한국인의 인기 해외여행지로 자리매김 했다”며 “이 여세를 몰아 양국의 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끼오송 직항노선 개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양무승 KATA 회장은 축사를 통해 "양국 관광인적교류가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까지는 타이완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타이완 관광청 한국지사의 열정적인 홍보 마케팅의 결과이며 이 자리를 빌어서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타이완 정부가 가장 먼저 여행주의 경보를 해제해 방한 관광객을 촉진하는데 큰 힘이 되어 주었음을 한국 여행업계를 대표해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날 관광설명회에는 스딩 타이페이대표부 대사를 비롯, 셰웨이쥘(謝謂君) 교통부관광국장, 양무승 KATA회장, 이재성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 본부장, 함철호 티웨이항공 대표, 한옥민 모두투어 사장, 이동한 하나투어 이사, 손병언 ANTOR 회장, 박종필 PAA 회장 등 주요인사 및 업계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대석 기자 leeds6775@empas.com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인쇄하기

인쇄하기

창닫기

Travel DAILY

HOME > 뉴스 > 인터뷰

셰웨이쥘 타이완 관광국 국장

이정민 기자 | 승인/2015.08.30 14:06

하반기 新 3개년 계획 수립, 한국시장 13억 투자
타이페이 지역 편중 극복 부산사무소 설립 예정

타이완 관광국의 내년 계획이 발표됐다.

타이완 교통부관광국은 현재 아시아 4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한국 관광객을 위한 대규모 투자비용 확보와 서울을 벗어난 지방까지 타이완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밝혔다.



셰웨이쥘(謝謂君) 타이완 교통부관광국 국장

이례적으로 타이완 정부에서 관광 분야를 총책임지고 있는 셰웨이쥘(謝謂君) 타이완 교통부관광국 국장까지 직접 한국을 방문해 한국 시장을 향한 적극적인 구매활동을 펼쳤다. 지난 8월 28일 열린 '2015 타이완 관광설명회'에 참석한 셰웨이쥘타이완 교통부관광국 국장을 단독으로 만나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 몇 번째 한국 방문인가?

3번째 한국방문이다. 올 때마다 한국 사람은 인정도 많고 열정도 많고 맛있는 먹거리도 많아 매우 매력적이다. 이런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타이완 방문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이번 설명회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알리나?

한국 시장에 대해 개인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지하고 있다. 현재 대만을 찾은 아시아권 국가중 한국은 4위인데 지난 6~7월 한 메르스 때문에 잠시 주춤했다. 하지만 이제 메르스 여파도 끝나고 한국 시장이 성장할 수 있도록 타이완의 다양한 매력을 전달할 것이다.

- 타이페이에만 편중된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전부터 타이페이로만 집중되는 한국 관광객들의 지역 편중 현상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면이 많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타이페이~카오슝 고속철도를 통한 다양한 지역 홍보를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통해 지역 편중 현상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본다.



- 타이페이 외에 다른 지역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닌가?

처음에는 타이완에 대한 국가 이미지를 먼저 홍보해야 했기에 수도권 타이페이 홍보에

우선적으로 집중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타이페이와 타이중 등 다른 지역들도 알고 있기에 타 지역 역시 홍보를 해 나갈 예정이며 한국에서도 수도권 위주로 홍보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다른 지역으로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그 첫 번째로 부산에 올 하반기 사무소 설립을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남과 남부 지역 사람들에게도 타이완에 대해 알려 나갈 것이다.

- 부산 사무소는 서울 사무소 소장이 관리하나?

전체적인 관리는 서울사무소에서 관리하며 부산 현장에도 인력 배치가 있을 예정이다.

-타이완 현지 가이드 부족 현상에 대한 해결책은?

가이드 부족은 타이완 대학교 안에 한국어과가 있는 대학을 위주로 홍보 설명회를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 가이드의 장점 등을 알리고 있으며 많은 한국어과 학생들이 유입될 것으로 본다. 또한 가이드 라이선스 시험은 횟수를 증가시키고 많은 이들이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 시킬 것이다.



이번 한국시장에서의 성병회는 타이완 현지 미디어들도 많은 관심이 쏟아졌다. 타이완 미디어측과 인터뷰중인 세웨이쥬(謝謂君) 타이완 교통부관광국 국장

-객실난도 문제다. 해결책은?

객실 부족 문제는 한국 관광객 뿐 아니라 전체 외래객이 증가하면서 부족해졌는데 많은 타이완 기업들이 호텔 신축 및 증축을 하고 있다. 공사가 마무리 되면 객실난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타이완에는 현재 에어비앤비 형태 또는 독특한 형태의 민박과 펜션 등 다양한 숙박 시설들이 많다. 관광국에서도 이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아직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숙박 형태는 타이완 관광청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를 제공 하고 있다.

-타이완은 FIT 수요도 많다. 이를 위한 대책은?

한국인들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알고 있다. 특히 FIT를 위해 타이완 관광청 한국어판 SNS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고 타이완 셔틀버스 등을 자유여행객들을 위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도 마련 중이다.

-‘꽃할배’ 영향 이후 수요가 빠질 시기가 왔다. 향후 한국 시장을 겨냥한 계획은?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3개년 홍보계획이 수립된다. 이와 관련해 12~13억원 정도가 한국 시장에 투입된다. 대형 홍보 활동 이외에도 지하철이나 주요 매체 들을 통해 로하스, 에코, 낭만 등 타이완 관광의 6대 테마를 집중적으로 알려나갈 것이다. 특히 한국 시장에는 미식문화인 ‘로하스’를 집중적으로 홍보 할 예정이며 지역 한계 역시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정민 기자 ljm@traveldaily.co.kr

<저작권자 © 트래블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쇄하기

日期	媒體	報導內容
8月31日	韓國觀光新聞	臺灣觀光局辦理 2015Travel Mart 及觀光說明會

2015 타이완 트래블마트·관광설명회 열려

타이완 관광청, 여행업계 관계자와 소통UP

타이완관광청은 지난 27일(부산 롯데 호텔)과 28일(서울 플라자호텔) 양일간 여행사 및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트래블마트 및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타이완 현지 여행사, 호텔, 테마파크, 기념품업체 등 28개 업체 50여 명의 대표단이 직접 한국을 찾아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일대일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서 마련되는 관광설명회에서는 타이완 각지의 여행정보를 담은 11인의 아주 특별한 여행기 'Story of Taiwan' 및 미식, 문화, 로하스 등 테마별 여행

정보를 소개했다.

또한 29일 토요일에는 강변역 테크노마트 광장에서 로드쇼를 개최해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방문일정에는 교통부관광국 국장이 직접 타이완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했으며 그 어느 해보다 적극적이고 다채로운 홍보의 장이 펼쳐졌다.

세웨이전 국장은 "타이완은 가깝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국가"라며 "양국의 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



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작년 양국 상호교류 100만 명 달성과 더불어 올 7월까지 한국인 여행객수가 36만9080명으로 전년 대비 23.15% 성장하는 등 타이완은 명실공히 인기 해외여행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수지 기자 nsj@ktnbm.co.kr

[인쇄하기]

HOME > 여행레저

타이완관광청 트래블마트 및 관광설명회 성료

등록 : 2015-09-02 16:09



타이완관광청은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 플라자호텔 22층에서 이행사 및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트래블마트 및 2015 관광설명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행사를 위해 타이완에서는 스딩 세웨이쥬(謝謂君) 타이완 교통부관광국 국장을 단장으로 타이완관광협회 왕전옥 부단장과 함께 타이완 현지 여행사, 호텔, 테마파크, 기념품업체 등 28개 업체 50여 명의 대표단을 구성, 직접 한국을 찾았다.

오전 11시부터 개최된 트래블마트에는 많은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들이 찾아와 타이완 관광업계와의 일대일 비즈니스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와 힘께 소기의 성과를 일궈내기도 했다. 이어 12시부터 진행된 관광설명회에서는 타이완대표부 대사의 인사말, 스딩세웨이쥬 국장 인사말, 이재성 한국관광공사 본부장 및 양무승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축사, 내빈소개, 왕전옥 부단장의 참가 사업체 소개, 오찬 순으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타이완 각지의 여행정보를 담은 11인의 아주 특별한 이행기 'Story of Taiwan'책자와 함께 미식, 문화, 루하스 등 네비벌 여행정보도 소개됐다. 특히 이날 설명회에는 약 150여 명의 국내 관광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타이완 관광시장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설명회에서 세웨이쥬 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타이완은 기쁘고 편리하며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국가로 앞으로도 한국과 타이완 양국의 관광업계가 메르스를 이기고 서로를 찾아 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133만 명을 넘어 150만 명 목표 달성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타이완은 여러분의 최고의 파트너로 이번 관광설명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어서 양국 간의 관광교류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무승 회장은 환영사에서 "한국과 타이완은 역사의 전통적으로 깊은 우의를 다져온 관계로써 개인적으로 관광분야에서 만큼은 빛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최근 몇 년 사이 한국인의 타이완 방문객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빛

도 깊고 양국의 관광교류증진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면서, “이 이세를 붙여서 한국과 타이완 200만 관광교류시대를 열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다음날인 29일까지 이어져 강변역 테크노마트 광장에서 일반 시민들과 소동할 수 있는 로드쇼도 진행되어 다양한 타이완 문화체험과 경품, 그리고 타이완 대표단뿐만 아니라 한국 주요 여행사들도 함께하는 여행상담존 운영 등을 통해 타이완과 한층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한편, 타이완관광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양국의 관광 교류 확대가 지속적으로 증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이완의 중, 남부 관광지까지 한국관광객이 많이 찾아 올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lagolftime@hanmail.net]

인쇄하기

첨달기

'타이완 최신 여행정보를 공유하다'



타이완관광청이 지난 달 27일과 28일 각각 부산과 서울에서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타이완 여행시장을 얘기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소공동 소재 더플리자호텔에서 진행됐던 행사 현장.

28개 업체, 50여 명 방한, 최신정보 소개

관광청, 올해 부산 연락사무소 개소 예고

타이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행사가 부산과 서울0 각각 개최됐다.

타이완관광청(한국소장 황이평)은 '2015 트래블 트 및 관광설명회'를 지난달 27일과 28일 부산 톡 호텔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치렀다. 본 행사0 세웨이즌 타이완 교통부관광국 국장을 비롯해 타

완 현지 여행사, 호텔, 테마파크, 기념품 업체 등 개 업체 50여 명의 대표단이 한국을 찾았다.

행사는 현지 최신 정보들을 소개하는 일대일 트래블 마트와 관광설명회로 꾸며졌다. 설명회는 타이완지의 여행정보를 담은 ‘Story of Taiwan’ 가이드북과 미식·문화·로하스 등 테마별 여행정보를 소개했다.

관광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2가지 주요 사항을 보였다. 우선 부산 및 영남지역 여행업계와 보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타이완 관광시장을 키우기 위해 ‘관광사무소’를 올해 안에 개소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다음은 올 하반기 한국과 타이완 양국의 하늘 길(기존 좌석수에서 편수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항공사는 보다 탄력적인 스케줄 운항이 가능하고 여행사는 성·비수기 또는 주중, 주말 수요 분산에 따른 행사 진행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세웨이전 교통부관광국 국장은 “지난해 한국과 타이완은 양국 상호교류가 100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는 130만 명 상호교류를 목표로 한다. 지난해 타이완을 찾은 한국인은 52만 8천여 명으로 50.21% 성장했다”며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타이완을 찾은 한국여행객은 37만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15% 성장하는 등 타이완은 명실 공히 인기 여행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2015 트래블 마트 및 관광설명회’에 참석한

현지 업체는 △구족문화촌 △중남해호텔 △Fu M
Travel Service △한센국제호텔 △Daisy 호텔
△Howard 호텔·리조트·스위트 △대도회여행사
광상세기 온천 호텔 △타이완 손신과자회사 △소
국 테마공원 △타이베이시티호텔 △타이베이 미
마가든호텔 △웰컴호텔 △Just Sleep △Resort
One Hotel △차밍호텔 △The Lalu Sun Moon La
△포르테호텔그룹 △Leofoo Village Theme Park
△HOTEL B 등이다.

문의 02)732-2357.

권초롱 기자 titnews@chol.com

日期	媒體	報導內容
9月7日	交通情報新聞	2015 臺灣觀光說明會圓滿成功



지난 2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여행사 및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트래블마트 및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타이완관광청 2015 트래블마트 및 관광설명회 개최

‘미식’, ‘문화’, ‘로하스’ 등 테마별 여행정보를 소개

타이완관광청은 지난 27일(부산 롯데호텔)과 28일(서울 플라자호텔) 양일간 여행사 및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트래블마트 및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타이완 현지 여행사, 호텔, 테마파크, 기념품업체 등 28개 업체 50여 명의 대표단이 직접 한국을 찾아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일대일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어서 마련되는 관광설명회에서는 타이완 각지의 여행정보를 담은 11인의 아주 특별한 여행기 ‘Story of Taiwan’ 및 ‘미식’, ‘문화’, ‘로하스’ 등 테마별 여행정보를 소개하는 기회가 마련돼 대만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날 관광설명회에 참석한 스텝 타이페이 대표부 대사는 “이번 관광설명회는 한국 시장에 보다 능동적으로 타이완을 홍보하려는 의도로 기획됐다”며 “최근 몇 년간 한국은 타이완 관광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국가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또 스텝 대사는 “새로운 관광코스과 항공노선확대, 이에 걸맞는 호텔객실 확충

및 가이드 양성 등을 통해 타이페이에 집중됐던 여행객을 분산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에 일환으로 빠른 시일 내에 김포~까오슝 직항노선 개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타이완 현지 여행사, 호텔, 테마파크, 기념품업체 등 26개 업체 50여 명의 대표단이 직접 한국을 찾아 국내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1:1상담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각각 성격에 맞는 파트너와 심층적인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방문일정에는 세웨이쥬(謝謂君) 교통부관광국 국장이 직접 타이완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해 그 어느 해보다 적극적이고 다채로운 홍보의 장을 마련했다.

세웨이쥬 국장은 “한국에서 발생한 메르스 여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까지 한국인 여행객수가 36만 9080명으로 지난해 대비 23.15% 성장하는 등 대만은 명실공히 한국인의 인기 해외여행지로 자리매김했다”며 “이 여세를 몰아 양국의 관광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웨이쥬(謝謂君) 교통부관광국 국장이 대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29일 토요일에는 강변역 테크노마트 광장에서 로드쇼를 개최하여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 다양한 문화 체험과 경품, 타이완 대표단뿐만 아니라 한국 주요 여행사들도 함께하는 여행상담존 운영을 통해 타이완을 한층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작년 양국 상호교류 100만 명 달성과 더불어 올 7월까지 한국인 여행객수가 36만 9,080명으로 전년 대비 23.15% 성장하는 등 타이완은 명실공히 인기 해외여행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日期	媒體	報導內容
9月7日	建設交通觀光新聞	臺灣觀光局辦理 2015Travel Mart 及觀光說明會

“가깝고 안전한 타이완으로 여행오세요”

타이완관광청 2015 트래블마트 및 관광설명회 개최



◇서웨이진 관광국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타이완관광청은 8월 27일(부산 롯데호텔)과 28일(서울 플라자호텔) 양일간 여행사 및 업계 관계자를 초청해 트래블마트 및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타이완 현지 여행사, 호텔,

테마파크, 기념품업체 등 28개 업체 50여 명의 대표단이 직접 한국을 찾아 한국의 여행업계 관계자들과 1:1 상담 및 교류의 장으로 진행, 다양한 최신여행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어서 관광설명회에서는 타이완 각지의 여행정보를 담은 11인의 아주 특별한 여행기 'Story of Taiwan' 및 '미식', '문화', '로하스' 등 테마별 여행정보를 소개하였다.

29일 토요일에는 강변역 테크노마트 광장에서 로드쇼를 개최하여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 다양한 문화체험과 경품, 타이완 대표단 뿐만 아니라 한국 주요 여행사들도 함께하는

여행...
르트 모터쇼의
을 랑크푸르트 메
록 15일 11시 30
C 행한다.
국, 현대자동차
타C 페 상품성개선
여, 공개와 더불어
다차 트 모터쇼에
세워 'N'의 방향성
값고 대 i20 웰 리
수, 'RM15', 'N
시장 모' 쇼카 등을
나갈 자동차의 고성
밝혔 열정과 역량을
서 이외에도 역
광설 적용된 'i40'
교통 '비전 G(Visio
팅(주 대자동차의 앞
영시 경쟁력을 강조
방한 한편, 기아
이선 오후 1시 30
관광 크푸르트 메
승호 스 행사를 갖
이쪽 전세계 최초로
를 유럽시장에